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8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9년 1월 7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콜텍투쟁 12년 끝내자!

1월 8~9일 1박2일 투쟁 후 본사 앞 농성 시작!

새해에 12년을 맞이한 콜텍 투쟁

콜텍지회의 투쟁이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다. 이제는 끝내자는 열망이 높다. 작년 12월 26일에는 사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1월 2일 3차 교섭까지 진행했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노사 양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2007년 콜텍 자본의 부당한 정리해고로 인해 콜텍 노동자들은 12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그동안 콜텍 자본은 해외공장을 통해 멀쩡히 사업을 계속해왔다. 자본은 살찌는 동안 노동자들은 고통에 살아야 했다.

본사 앞 집중투쟁 시작!

콜텍지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이제는 본사 앞으로 옮겨 끝장 투쟁을 결의한다. 1월 8일(화)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총 앞, 민주당사 앞으로 행진을 벌인다. 9일(수)에는 15시 행진, 16시 본사 앞 집중 집회를 개최하고 본사 앞 농성을 시작한다. 12년의 한을

풀고 콜텍 노동자들의 승리를 만들기 위한 끝장투쟁이다. 지부는 15시 등촌역에 집결해서 행진하고 16시 본사 앞 집회를 함께 할 계획이다. 콜텍투쟁이 새해를 맞아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지부의 연대도 끝까지 간다!

콜텍 투쟁이 12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지부 조합원들의 연대였다. 지부 전체 조합원들이 매월 지부결의금을 내서 콜텍투쟁을 비롯한 투쟁사업장을 지원해왔다. 콜텍지회도 지부결의금의 힘으로 지금껏 투쟁을 버텨올 수 있었다. 결의금은 콜텍투쟁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벌써 12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끝장을 보기 위한 투쟁으로 가고 있다. 지부의 연대도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 이번 1박2일 투쟁과 본사앞 농성에서도 지부 전체 연대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의 연대로 콜텍투쟁을 꼭 승리로 마무리하자. 2019년 투쟁의 시작은 콜텍투쟁이다.

故 김용균 동지 추모행동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동지를 추모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추모행동을 전개하고 태안화력발전소 앞 집중 문화제, 전국적인 서명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현장 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부발전은 현장 훼손과 진실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작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반쪽짜리다. 더욱이 고인이 목숨을 잃은 발전소는 하청, 재하청의 고용구조도 그대로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더 큰 투쟁이 필요하다.

* 주요 일정 *

- ☐ 콜텍 끝장투쟁 결의대회
1/9(수) 15시 서울 등촌역
- ☐ 故 김용균 추모문화제
1/10(목) 15시 태안발전소 앞
1/12(토) 시간미정, 청주성안길
- ☐ 금속노조 정기대대
1/14(월) 14시 대구엑스콤